

나와 우리, 지구를 살리는 생태 생명운동 ‘혼연일체’

전라남도새마을회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이귀남)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구를 살리는 생명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명운동’과 상생과 통합을 위한 ‘평화운동’, 사회적 자본확충을 위한 ‘공동체운동’을 펼치는 전남새마을회는 오늘도 18만명의 회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역점사업인 ‘깨끗한 전남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전남새마을회가 목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4개 회원단체(협의회, 부녀회, 직공장, 문고)와 22개 시군새마을회, 297개 읍면동새마을회로 구성돼 마을단위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는 주민밀착형 봉사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전남새마을회가 생명운동으로 추진하는 ‘깨끗한 전남 만들기’는 범도민 정결운동으로 해양쓰레기 및 해양스티로폼 없는 깨끗한 바닷가 만들기를 위해 진행되는 해양정결활동과 생명의 땅 전남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펼치는 폐비닐과 폐농약병, 농약봉지 등 영농쓰레기 수거활동, 소하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이 살아 숨 쉬는 전남의 블루이코노미를 실현하고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 활동인 것이다.

전남새마을회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읍·면·동을 중심으로 분기별 1회 주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전남 만들기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급 단체(새마을, 행정기관, 유관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로 강진과 해남지역에 유입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이귀남 회장을 비롯한 새마을지도자들이 발벗고 나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펼쳤다.

이 외에도 장흥·강진·해남·진도에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과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지원 봉사활동을 벌였다.

또 22시군에서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해안가와

탄소 중립 실현 생명운동
상생·통합 위한 평화운동
사회적 자본확충 공동체운동

해양·소하천 정화·코로나 방역
영농쓰레기 수거·수해복구 지원
구석구석 ‘깨끗한 전남 만들기’
18만 회원 주민밀착형 봉사활동

소하천에 유입된 쓰레기 수거활동을 7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진행해 ‘깨끗한 전남 함께 잘사는 공동체 실현’에도 앞장섰다.

전남새마을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남 22개 시군에서 방역 봉사활동은 물론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한창인 지역 백신예방 접종센터에서 청소와 방역소독에 동참하고 있다.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한 어르신들을 부축하고 체온측정과 문진표 작성을 돕는 등 백신 예방접종 지원 봉사활동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남새마을회에서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읍·면·동 단위로 소규모의 주기적인 정결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 분기 첫째주 금요일을 ‘깨끗한 전남 만들기’의 날’로 지정해 읍·면·동 회장 책임하에 읍·면·동사무소와 연계해 해양·영농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캠페인과 농·어업인, 관광객,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계도 캠페인과 쓰레기 퇴거요지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민관이 함께하는 청소체계를 구축해 청소가 어려운 해안가 마을은 읍·면·동 새마을단체가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 정화활동과 바닷가 주변 불법 소각 및 불법투기 단속을 전개하고 있고, 태풍과 홍수 후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수거활동도 적극 추진



이귀남 회장 등 전남새마을회 회원들이 최근 집중 호우로 강진과 해남지역에 유입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왼쪽)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진도군의 주택과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지원 봉사활동을 벌였다.



할 예정이다.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특정 시기에는 맞춤형으로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봄에는 겨울내 축적된 영농·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주요 농지 및 산, 들, 강, 바다(해안가, 해수욕장)에 방치된 쓰레

기를 일제히 수거하고, 여름 휴가철에는 주요 관광지 및 계곡, 해수욕장에 환경안내소를 설치해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남새마을회 관계자는 “깨끗한 전남 만들기는 마을환경 개선으로 시작해 더 깨끗하고 더 푸른 미

래를 위해 지구를 살리는 실천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새마을 가족과 전남도민 모두가 동참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가 더욱 빨리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2050 탄소 배출 제로 앞장서겠다”

이귀남 전남새마을회 회장

“‘깨끗한 전남 만들기’는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이 아닌 생명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생명생태 운동입니다.”

이귀남 전남새마을회 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남새마을회는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깨끗한 전남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오염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지 실감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의 이웃인 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의 고통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이 아닌 환경을 되살리는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우리 새마을회가 ‘깨끗한 전남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는 이유는 이 캠페인이 나 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잘사는 운동이며 탄소중립 실현으로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생명운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50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운동 단체인 새마을회가 앞장서 2050 탄소배출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저탄소 에너지 사회 구축을 위해 모든 국민의 협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민관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을 위한 새마을 실천수칙’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새마을회는 탄소중립사회의 전환을 위해 그린에너지와 녹색교통·생명경제, 국토 저탄소화·탄소중립 식생활 3개 분야에서 15가지 수칙을 실천해 나가고자 새마을가족은 물론 이웃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힘을 합쳐 나아간다면 반드시 극복되리라 확신한다”며 “18만 전남새마을 가족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비금·도초 운행 비금농협고속페리 2호 출항

신안 비금농협고속페리 2호가 출항하면서 비금, 도초 주민들의 교통 환경이 한 층 개선될 전망이다.

비금농협 등에 따르면 지역민들의 숙원인 가산항과 목포 북항간 직항로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인가 완료됨에 따라 28일부터 하루 3회 왕복 운항하게 된다.

출항시간은 목포 북항에서 오전 5시30분, 11시30분, 오후 4시40분이고 비금 가산항에서는 오전 7시30분, 오후 2시, 6시30분이며 소요시간은 1시간은 30분이다.

비금농협고속페리 2호 차도선은 388t으로 여객정원은 195명, 항해 속력은 15노트다. 이번 고속페리 2호가 출항하기까지는 면민과

출항인, 농협 임직원 등이 합심해 지역 숙원사업인 여객선 현대화와 증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힘이었다.

이에 따라 신안 남부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시금치(섬조), 천일염 등 농수산물을 적기에 운송할 수 있어 농가소득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승영 비금농협조합장은 “면민과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교통 제공은 물론, 농가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에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거듭 발전해나가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항 물동량 크게 늘었다…자동차 146% ‘쑈쑈’

자동차 15만3000대 등 2분기 1198만t…전년동기비 5.9% 증가

목포항의 자동차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4~6월 2분기 누적항만 물동량은 1198만3000t으로 전년 동기(1132만t)보다 5.9%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외항화물은 총 427만4000t으로 전체 물동량의 35.7%를 차지했다. 내항화물은 총 770만9000t으로 64.3%다.

올해 1~3월 1분기 물동량은 전년 대비 다소 침체한 모습을 보였지만 2분기 항만물동량(648만t)이 전년 같은 기간(538만6000t) 대비 20.3% 상승했다.

이처럼 2분기 목포항 물동량이 증가한 것은 철재 물동량 감소량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자동차 물동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수청은 분석했다.

목포항 주요 취급화물인 자동차 물동량은 총 15만3000대로 지난해 2분기(6만2000대)보다 146.1% 상승했다. 특히 환적 차량화물 처리량의 경우 지난해 2분기(1만5000대)보다 351.4% 상승한 6만6000대로 대폭 증가했다.

수출자동차 처리량 또한 8만7000대로 지난해 2분기(4만8000대) 대비 83.0% 증가해 자동차 수출

창구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또 다른 주요 화물인 조선 기자재를 중심으로 한 철재 물동량의 경우 지난해 조선 수주 감소 영향이 남아 전년도 2분기(150만t) 대비 23.2% 감소한 115만2000t을 기록했다.

최근 조선 분야의 호재에 따라 장기적인 전망은 밝은 것으로 목포해수청은 전망했다.

김성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감소했던 자동차 물동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좋은 신호”라면서 “조선 기자재 또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